

간호문제연구법을 위한 집담회

= 1968년 12월 2일~7일 =

본협회 간호업무부 주최 “간호문제연구법을 위한 집담회”가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연세의대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.

이 집담회는 전국 각병원 수간호원, 감독간호원 및 간호원장을 대상으로 현대적 환자간호에 대한 의욕을 들우어 주어 간호원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고, 임상간호 및 병원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.

과거에도 본협회에서 수차례 걸쳐 Seminar를 개최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 집담회는 그 참석자의 수가 60명 이란 최고수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그 수강태도도 진지하고 열의가 있어 강사들이나 주최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었다.

이는 그만큼 우리 간호계가 성장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니 우리 서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.

특히 여러 강사들의 실제적으로 유익한 강의내용과 과거에 없었던 간호문제연구를 위한 통계학은 흥미로웠으며 수강생들에게 큰 수확을

거두게 하였고 집담토의를 통한 수강생들의 의견 교환은 서로의 난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다음에 이번 집담회 순서와 집담토의 결과를 소개하겠다.

12월 2일 : 현대간호의 경향(전산초)

현대보건간호의 경향
(이경식)

12월 3일 : 간호계획(이경혜)
임상집담회

12월 4일 : 간호법 연구(전산초)
사례 연구 (")
집담토의

12월 5일 : 간호문제연구법 (하영수)

12월 6일 : 간호문제연구를 위한 통계학(김도임) 집담토의

12월 7일 : 특강(이영복)
평가, 수료식

강사——

전산초(연세의대 간호학과 부교수)

이경식(우석의대 간호학과 부교수)

이경혜(연세의대 간호학과 전임강사)

하영수(이화의대 간호학과 조교수)



<집담회 강의 시간>

김포임 (연세의대 간호학과 전임강사)

이영복 (이화여대간호학과 교수)

한편 여러 시간의 집담회의 결과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.

① 간호의 질적향상과 양적대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의 배정, 졸업간호원의 재교육, 타직원과의 team work, 시설 및 기구 정비, 보호자 방문시간 열수, 평가, 신입간호원의 orientation 등이 필요하다.

② 우리나라의 보건의간호사업을 발전시키려면 보건의간호원의 양성기관을 늘리고 능숙한 보건의간호원에게 적

지수당을 지급하며, 신졸업생에게 약 6개월간의 능숙한 배치가 있어야겠다.

③ 수술환자에게 있어서는 환자의 정신적문제나 습관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보호자가 필요하다.

④ 도노는 반드시 졸업간호원이 무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

⑤ 앞으로의 간호는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간호가 되어야겠다.

또 집담회가 끝난 후 이번 집담회에 대한 평가지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.

① 간호문제연구에 대한 의욕을 새

로히 갖게 했다.

② 환자 중심간호연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.

③ 집담회를 위한 준비는 만족했다.

④ 집담회 장소는 만족했다.

⑤ 집담회 개최시기는 만족했다.

⑥ 전체시간 배정은 만족했다.

⑦ 집담토의 시간수는 만족했다.

⑧ 가장 만족했던 점은 환자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연구, 사례연구, 간호문제 연구법 등 nursing care study의 강외와, 강사와 협회직원의 성이었다.

⑨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은 통계

학에 있어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낱말의 배열이 이해하기 곤란했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서양적인 간호학에 기초를 둔 점이다.

⑩ 다음에 임상간호원을 위한 집담회가 개최된다면 희망하는 주제는 실제적인 산교육을 목표로 한 내용과 주제를 택했으면 한다.

⑪ 기타 희망사항은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들 마련하는 것이었다.

이상의 평가에 의하면 대체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좀더 한국적인 간호를 위한 실제적인 집담회를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.



<집담회를 마친 수강생들의 간담회>